

장벽산천지

제 97 호

2008년 8월 8일

금요일

북경올림픽은 중공의 “운동” 회가 아니다.

북경올림픽을 맞이하게 되는 오늘, 사람들은 “정치운동”的 시대는 이미 지나갔기에 북경올림픽은 체육의 성대한 모임이라고 여기고 있겠지만 중공은 북경올림픽을 “중요하고 영광스러운”、“목전에 일체를 압도”하는 “정치운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공은 11 류형, 43 종류 사람들을 올림픽대문밖에 밀어내는 내부통지를 내린 후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반년동안에 파룬궁수련생들을 대량적으로 체포하고 감금했는데 그 수자는 8 천여명이나 된다. 이와 같이 중공은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강화하고 있으면서도 뻔뻔스럽게도 평화、자유、관용、공평한 올림픽정신을 발양하고 있다고 거짓 선전하면서 전세계를 속이고 있다.

이번 북경올림픽의 “정치운동”은 이전의 정치운동과는 전혀 다르다. 이전의 정치운동은 박해대상을 공개하고 비판투쟁

을 했지만 이번 북경올림픽 “정치운동”은 박해대상을 공개하지 않고 암암리에서 사람을 체포하고 박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전의 정치운동은 계급투쟁을 기본 고리로 삼고 민중을 동원하여 계급의 적을 타도하는 것을 합법화했기에 공개적으로 투쟁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정치운동”은 력대정치운동에서 피의 교훈을 얻은 민중들은 사람을 함부로 체포하고 박해하는 것은 불법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공개하지 못하고 그 진상을 덮어 감출 수 밖에 없다.

중공은 이번 북경올림픽을 통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정확한 공산당”이라고 자신을 미화하고 중공일당독재통치의 합법성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 선량한 사람들은 북경올림픽이 무고한 민중을 박해하는 피비린 “운동”회로 전락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진정한 인민의 올림픽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보낸 백만명 반박해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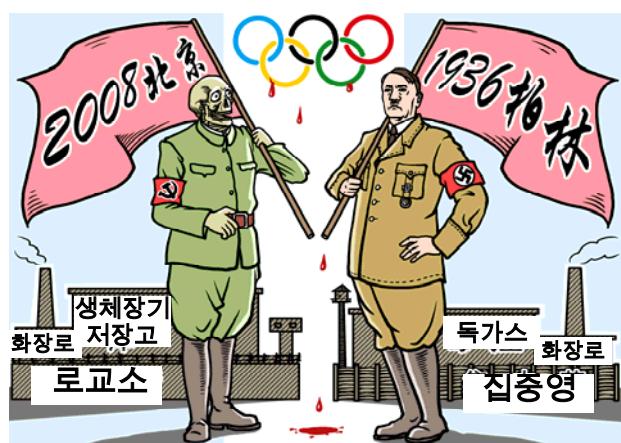
“파룬궁박해진상조사단”스위스대표 바호만선생은 130개 나라의 1,215,913 명 민중들의 서명과 세계 각국의 정부요인、국회의원、변호사、의사들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정지하라는 서한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보냈다. 그리고 “파룬궁박해진상조사단”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문앞에 《중국인민은 중공이 없는 올림픽을 지지한다.》는 프랑카트를 전시했다.

바호만선생은 국제올림픽위원회 문앞의 연설에서 《중공은 올림픽을 구실로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가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갑올림픽”



2008년 올림픽과 1936년 올림픽



불쌍한 어린이들

99년 7.20"파룬궁탄압이래 9년동안 중공의 박해에 파룬궁학원들이 수천명이 피살되었고 수십만명이 로교소와 감옥에 갇혀 있다. 이리하여 부모를 잃은 수많은 어린이들의 심령속에 영원히 아물수없는 원한의 상처를 남겨놓았다.

흑룡강성쌍압산시에 사는 장장(壯壮)어린이는(왼쪽 사진) 원래 행복한 가정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 반흥복(潘興福)은 16살때 우수한 성적으로 무한화중 리공대학소년반에 입학했고 대학 3학년때 파룬궁을 수련하게 되었다. 그는 파룬궁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2002년초에 판결을 받고 강제로동을 하다가 2005년초에 31세 일기로 세상을 떴다. 장장 어머니 장려(張麗)도 파룬궁학원이였는데 사업에서 출중하여 외국에 가서 연수까지 했다. 그는 9년 도형을 받고 지금까지 감옥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

"마음 좋은 아저씨와 아줌마들은 나를 도와

아빠를 집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말은 대경석화본공장 제1소학교 4학년학생인 장가서(张家瑞)의 간절한 기대이다. 그의 아빠 장빈(張斌)은 1998년초에 파룬궁을 수련하여 짧은 시일내에 담배와 술을 끊어버렸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으며 언제나 남을 생각하고 좋은 일을 했다. 하지만 2004년 12월에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지금까지 수화로교소에서 박해를 받아 두 손바닥과 두발바닥은 전기에 타서 새까맣게 되였다.

목에 맨 올가미를 베여버리자



어린이들이 입대선서 할때 붉은 넥타이를 목에 매여주는 것을 "진보"의 표지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 붉은 넥타이는 목을 조이는 올가

미로 되여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산동성에서 사는 9살 나는 한 남자애 소강은 목에 맨 붉은 넥타이가 창문걸개에 걸려 온몸이 공중에 매달렸다. 집에 돌아온 누나가 가위로 붉은 넥타이를 베여 동생을 땅에 떨구었다. 하지만 소강은 이미 호흡이 정지된채 어린 생명을 잃었다. 우리는 속히 퇴대하여 목에 맨 "올가미"를 베여버리자.



고상한 품모

나의 외사촌동생은 택시운전수였다. 며칠 전에 그는 차를 몰고 아침시장 갈림길에서 굽어들때 어느 누가 《차를 세우시오. 사람발이 바퀴에 끼웠소.》하고 고함쳤다. 그는 급히 차를 멈춰세우고 차창문을 열고 보니 7순이 넘는 한 로인이 서있었다. 《할아버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까? 병원으로 갑시다.》 그가 말하자 로인은 명랑히 웃으면서 《괜찮네. 병원에 가서 뭘 하오?》라고 말하고는 아무 일 없다는듯이 차바퀴자국이 찍힌 발을 옮겨 디디며 앞으로 걸었다. 《젊으니 내가 알려주지. 난 파룬궁수련자요. 사부님께서 날 보호한 것이요. 나는 아무 리유없이 남의 돈을 갈취할수 없소.》하고 할아버지가 말하자 그는 얼굴에 돋은 식은땀을 문지르며 기뻐서 말했다. "오늘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전에 파룬따파가 신기하다는 말은 들은적이 있었지만 오늘 친히 목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대법호신부를 주었다. 호신부를 받아 든 그는 언제나 먼저 남의 평안을 생각하는 파룬따파수련자의 고상한 품모에 감동되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다시 광명을 보았다.

사천성천동지역에 70세나는 한 로인이 살고



있는데 10년전에 두눈이 실명되었다. 그는 한 대법제자에게서 파룬궁진상이야기를 듣고 호신부를 받은 그날부터 매일 파룬따파가 좋다." "찐싼린이 좋다."라고 묵념했다. 3일후 그는 두눈이 돌아감을 느꼈고

또 2일후에 갑자기 눈앞이 환해졌고 점차 물체를 똑똑히 볼수 있었다. 그날부터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시 광명을 보게 된 자신의 경과를 이야기 하군 했다.



폭로

연변박해소식

■ 지난 7월 20일에 왕청현 악인들의 밀모하에 파룬궁학원 왕숙분(王淑芬)、김정자(金貞子)、리계화(李桂华)、정립군(郑立军)、리우존(李优存)、염춘월(廉春月)、등극매(滕克梅)、전옥매(錢玉梅) 허금숙(许今淑)、허숙자(许淑子)、림군립(林君立) 류추봉(娄秋风) 등을 랍치, 감금했다.

■ 지난 7월 22일에 화룡시 파룬궁학원 왕혜걸(王惠杰)이 악경들에게 랍치되었고 연길시파룬궁학원 리호철(李虎哲)도 최근에 랍치되었다.